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장애노인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012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전공

편민숙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정진택

장애노인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s of Leisure Activity of Elderly
Disabled on Life Satisfaction

201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전공

편민숙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정진택

장애노인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s of Leisure Activity of Elderly
Disabled on Life Satisfaction

위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전공

편민숙

편민속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장애노인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전공

편 민 숙

본 연구는 현재 여가 활동 관련기관에 가입하여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노인들과 여가 활동에 참여 하지 않은 장애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그 효과성을 규명함으로써 장애노인 여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장애노인 인구증가와 노년기 연장, 퇴직으로 인해 상실되었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 해주고 노년기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함으로써 생활의 만족감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국가 재정 감소 정책 등 을 위해서도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수행 하기위한 분석방법으로는 빈도 분석 및 교차분석 ,분산 분석 그리고 상관관계, 다중 회귀분석기법을 이용하였고 첫째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둘째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생활의 만족 실태를 파악하기위해 인구 통계학적 요인별 생활만족도에 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로 여가 활동 유무에 따라 생활만족도를 분석하기위하여 분산분석과 t-분석을 실시하였고 60세 이상 장애노인의 여가활동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 하기위하여 상관관계 및 다중회기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독립변수인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와 유의확률 $p<.000$, 모형의 적합도 $F782.980$ 로 매우 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변수에 관해서도 장애인요인과 생활만족도가 유의확률 $p<.000$, $t=36.060$ 으로 높은 관련성을 보였으며, 여가 활동과 생활만족도에 있어서도 유의확률 $p<.000$, $t=27.982$ 으로 통계적 관련성이 검증되고 있다. 분석결과 독립변수 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요인은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에 베타 값(회귀계수) .402으로 40.2% 만큼의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베타 값의 방향이 양수로 장애인요인의 값이 증가할수록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역시 증가하는 정적(+)인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 활동에 있어서도 베타 값이 0.250으로 25.0% 만큼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여가활동의 지수가 높아질수록 장애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정적(+)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모형의 설명력 조정된 R 제곱의 값이 0.546으로 54.6% 만큼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유의미성을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장애노인들의 여가활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활동이나 정책의 수립이 결국 장애인들의 생활만족도를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활동을 함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정책적 실천방안이 필요하다.

주요어 : 장애노인, 노후생활, 생활만족, 여가활동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3
제 3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7
제 1 절 장애인의 여가활동 이론적 고찰	7
1. 장애인 여가활동 개념정의	6
2. 장애인 여가활동 구성요소	8
3. 장애인 여가활동의 선행연구	9
제 2 절 장애인 생활만족도 이론적 고찰	11
1. 장애인 생활만족도 개념정의	11
2. 장애인 생활만족도 선행연구	14
3. 선행연구의 시사점	38
제 3 장 연구 방법	40
제 1 절 연구모형 연구가설	40
1. 연구모형	40
2. 연구가설	41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42
제 3 절 분석 방법	43

제 4 장 연구결과 45

제 1 절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분석결과	45
1. 인구 통계학적 특성	45
2.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여가 활동에 대한 분석 결과	47
3.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장애인 생활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	56

제 2 절 장애인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결과.	64
--------------------------------------	----

1. 장애인 여가 활동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64
-------------------------------	----

제 5 장 결 론 67

제 1 절 정책적 제언	67
--------------------	----

【참고문헌】	70
--------------	----

ABSTRACT	74
----------------	----

【 표 목 차 】

[표 3-1] 변수의 구성요소	42
[표 4-1]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6
[표 4-2] 성별과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결과	48
[표 4-3] 연령과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결과	49
[표 4-4] 혼인과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결과	50
[표 4-5] 학력과 여가활동만족도에 관한 연구결과	51
[표 4-6] 소득과 장애인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결과	52
[표 4-7] 장애유형과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결과	53
[표 4-8] 장애등급과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결과	54
[표 4-9] 연령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결과	56
[표 4-10] 혼인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결과	57
[표 4-11] 학력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결과	59
[표 4-12] 소득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결과	60
[표 4-13] 장애유형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결과	61
[표 4-14] 장애등급과 장애인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결과	62
[표 4-15]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 간의 회귀분석 결과	65

【 그림 목 차 】

<그림 2-1> 여가 개념 정의	8
<그림 2-2> 여가활동 구성 요소	9
<그림 2-3> 연구모형	4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최근 여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애인인의 여가활동에 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여가활동은 아직까지 장애인을 비롯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장애노인을 위한 여가활동’으로만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그 활동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하지만 요즈음 ‘장애노인에 의한 여가활동’ 즉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성인 여가활동 참여자의 비율은 1970년대 이후 매년 200%씩 늘어나는 증가세를 보여 왔는데, 그 증가의 상당부분은 장애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장애인의 여가 참여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대체로 건강이나 재정적인 여건이 향상되었거나, 혹은 여유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시간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노년층으로 유입되면서 사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장애인들이 사회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여가를 선택하면서 노인 여가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선행연구에 밝힌바 있으나 장애노인의 여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 이어서 장애 노인 이 주제가 되어 이 연구를 하게 되었다.

장애노인의 여가활동의 대부분은 단순 활동에 그치고 있고 활동내용도 비전문 수준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장애노인을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마련사업과 연계한 장애인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미비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만족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노인의 여가활동의 참가비율은 다른 연령층의 참가비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른 연령층의 여가활동 참여율에 비하면 장애인의 여가활

동 참여율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반면 외국의 여가활동 참가율은 미국이 40%, 독일이 45%, 일본이 31%, 호주가 17%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여가활동 참가율이 낮은 이유는 장애인 여가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나 장애노인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는 우리나라 장애인노의 건강이나 경제상태가 여유롭지 못하며 장애인들의 특성이 권위적이고 가족주의 의식이 강한 점과 여가활동을 통한 욕구 충족정도가 낮은 점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가활동에 있어 장애인의 36.1%가 비디오를 포함한 TV시청 등으로 집안에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고, 영화나 연극관람 등 집밖에서의 여가활동은 겨우 0.7%였으며 관광, 등산, 낚시 등 여행과 관련된 여가활동 참여는 1.7%, 스포츠 활동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활동이 불만족스럽다는 장애인이 41.4%이며 여가시간을 만족스럽게 보내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건강이나 체력의 부족이 36.4%로 가장 많았다.

이와 다르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2007년 통계청의 사회조사보고서에서는 여가활동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중 건강과 체력부족은 6.5%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만족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보여준다. 장애인은 장애라는 조건 때문에 TV시청 등 소극적 여가활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스포츠, 여행, 관람 등의 적극적인 여가활동참여에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많은 장애인들 이 건강과 체력문제로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가활동은 장애인에게 퇴직으로 인해 상실되었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해주고 상실되기 쉬운 장애인의 사회적 유용성과 가치성을 유지,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소외감을 극복해주는 등, 노년기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함으로써 생활의 만족감을 높이는데 기여하므로 현 시점에서 강조해야하는 충분한 이해가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안정된 장애인 인구의 증가와 노년기의 연장, 교육 및 건강수준의 향상 및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욕구의 증대와

장애인 인력활용을 통한 국가재정 감소정책 등의 사회적여건의 변화가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하는 현실을 시사하고 있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여가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한편 여가를 중요한 사회자원으로 인식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노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에 성취했던 것들을 상실해가는 시기이다.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 건강 등을 상실하며 젊은 계층에 비하여 더 많은 사회문제를 갖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은 많은 건강문제를 수반하며, 건강의 악화는 정서상태의 변화, 우울과 관련된 행태변화, 사기저하, 무력감 그리고 사회적 고립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나타난다.

장애인의 긴 여가시간, 역할상실, 수입절감, 건강악화, 부양 및 보호문제, 사회적 심리적 고립과 소외 등은 정책적 제도적 차원의 접근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 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장애인문제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와 국가가 공동으로 대처해야하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장애인문제의 해결은 근본적으로 장애인들이 인간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의 확보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생활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가활동의 특성이 장애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생활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이는 장애인의 생활의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별 장애인들의 생활의 만족의 관계를 분석한다. 둘째, 장애인들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장애인의 여가활동 영향요인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요인, 경제적요인, 건강요인 등으로 한정하고 여가활동과의 인과 관계를 분석한다. 장애인의 여가 특성에 따라 생활의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가? 셋째, 장애인의 여가활동 유무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선행연구들에서 여가활동 유무에 따라 생활만족도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가활동 유무에 따라 생활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가활동을 하는 장애인과 여가를 하지 않는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차이를 분석한다. 넷째, 여가활동이 장애인들의 생활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현재 여가 관련 기관에 가입하여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과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장애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그 효과성을 규명함으로써 장애인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첫째, 장애인인구의 증가와 노년기의 연장, 퇴직으로 인해 상실되었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해주고, 노년기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함으로써 생활의 만족감을 높이는데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둘째,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여가활동을 참여하는 장애인의 자존심을 유지하고, 개인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셋째, 또한 본연구의 효과성을 규명함으로써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여가를 활성화와 여가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주제는 ‘장애노인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노인의 여가 활동이 생활만족에 대한연구는 선행 연구가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장애노인의 생활만족에 대한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

이다. 해서 이 연구를 하게 되었다. 연구방법은 크게 탐색적 조사와 실증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탐색적 조사의 주요 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해 여가활동이 장애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여가활동이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기존의 국내외 관련 서적과 연구 논문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활동과 생활의 만족도 및 여가 활동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여가활동이 생활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틀과 가설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학술서적과 논문의 조사 그리고 관련기관의 기초자료에 관한 조사와 신문 및 잡지, 보도자료 조사 등으로 연구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둘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실증 분석 방법으로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 분산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다음으로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생활의 만족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요인별 생활만족도에 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여가활동 유무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t-분석을 한다. 그리고 끝으로 60세 이상 장애인들의 여가활동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기위한 절차 및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관성 있는 기존 선행연구들에 대한 문헌조사를 하였다.

둘째, 연구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실증적 분석결과들에 대한 고찰 및 검토를 통해 이론적 접근을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연구과제의 설정 후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여 이론적 검증과 실증적 검증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문헌들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 생활만족도를 규명하고자 선행요인 및 효과

와 관련된 요인들을 참고로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그리고 여가활동이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계를 밝히기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한 다음 기존문헌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및 가설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후 본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검증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 한다.

다섯째,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분석방법은 SPSS 12.0 program을 이용하고,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 차이는 분산분석 t-test를 활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장애인의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 할 것이다.

여섯째, 표집 대상은 60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을 하는 집단과 여가활동을 하지 않은 집단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생활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조사대상자들의 여가 특성이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 체계는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하여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였고, 제2장은 본 연구를 수행하기위해서 여가활동과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 하기위한 이론적 배경의 고찰을 통해 연구의 모형을 설계하는데 바탕이 되는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였다. 제3장은 본연구의 실험을 위하여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하여 연구모형을 통한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이에 주요변인의 구성과 측정도구를 제시 하고, 실증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절차, 자료 분석 방법을 명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본연구의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로 실증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연구 조사 결과를 종합적 요약 및 정책적 함의로 구성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장애인의 여가활동 이론적 고찰

1. 장애인 여가활동 개념정의

만족이란 보상의 문제로서 개인이 어떠한 활동을 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며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인간이 심리적 또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으로 한 개인이 갖는 기대와 실제로 받은 보상 사이의 일치의 정도이다. 따라서 여가 만족이란 선택한 여가활동에 참여한 결과로써 형성되는 긍정적인 감정이나 인지의 정도로서 여가 활동의 참가자가 만족스러운 즐거움, 성취, 건강 증진과 같은 보상을 얻거나 이끌어 내었을 때 그 여가활동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김성순(1999)은 시간개념으로 볼 때는 여가시간으로, 활동 개념으로 볼 때는 여가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여가라고 하면 곧 여가활동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나, Nash(1960)는 여가를 노동, 수면과 아울러 기타 필요한 활동으로부터 벗어난 자유 시간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Brightbill, C. K(1969)는 여가를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 갖게 되는 자유 재량적 시간으로, Kraus(1971)는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활동에 종사한 이후에 남는 자유 시간으로, 김광득(1990)은 근대 산업 사회로 이행하면서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해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상대적으로 일로부터 벗어난 시간, 즉 자유시간이 증가하면서 일과 여가의 분리가 가능해짐으로써 대두된 개념으로서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개념이며, 이때 자유시간이란 생업이나 기타 생존에 필요한 시간을 제외한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임의로 쓰이는 잔여 시간을 의미 한다고 정의 하면서 여가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Dumazedier(1974)는 여가를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일, 사회적 의무로부터 벗어나 휴식이나 오락 또는 지식, 자발적 사회 참여, 창조적 능력

등의 자유의지에 의해 스스로 행하는 활동이라고 하여 여가를 활동의 개념으로 정의하였고, 자유에 대한 인식(인지된 자유)을 여가의 필수요소로 파악하며, 여가의 개념을 심리상태로서의 관점으로 보는 Neulinger(1981)가 있으며, <그림 2-1>와 같이 내적 동기의 여부에 따라 여가를 분류하였다.

인지된 자유도					
인지된 자유			인지된 제약		
동기			동기		
여가			여가		
내적	내외적	외적	내적	내외적	외적
순여가	준여가	노동형 여가	순일	준노동	순노동
←----- 마음의 상태 -----→					

<그림 2-1> 여가 개념 정의

2. 장애인 여가활동 구성요소

Beard & Ragheb(1980)는 여가만족의 구성 요소를 심리적, 환경적, 교육적, 사회적, 생리적, 휴식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심리적 요인은 여가활동을 통해 얻는 개인의 즐거움이나 정서적인 만족을 통해 여가 활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것이며, 환경적요인은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주위 환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잘 꾸며졌는가에 대한 요인을 말하고, 교육적 요인은 여가활동을 통한 지적 욕구의 충족에 관련된 요인이다. 사회적 요인은 여가활동을 통해 타인 혹은 타 집단과 접촉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의사소통 등 사회적 적응의 기여를 그리고 생리적요인은 여가 활동이 개인의 생리적 신체 활동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험의 기회에 관한 부분이며, 휴식적 요인은 새로운 노동을 위한 휴식의 효과이다. 여가 만족의 구성 요소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2-2>와 같다.

항 목	내 용
심리적(Psychological) 요인 환경적(Aesthetic) 요인	즐거움, 소속감, 자유의 정도 아름다움, 미적 보상
교육적(Educational) 요인 사회적(Social) 요인	지적 환경, 학습 대인 관계 유지, 사교
생리적(Physiological) 요인 휴식적(Relaxational) 요인	건강, 체력 유지, 신체 개발 휴식, 긴장감 해소

<그림 2-2> 여가활동 구성 요소

3. 장애인 여가활동의 선행연구

장미경(2010)은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여가활동유형과 참여정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장애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체, 뇌병변, 시각·청각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경상남도에 위치한 10곳의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12곳의 농아인 협회, 11곳의 시각장애인연합회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물리치료실과 여가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지체, 뇌병변, 시각·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가활동참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국민여가활동조사(2007) 설문지와 김도연(2004)의 척도를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53문항으로 응답범주는 ‘거의 매일한다 ① ~ 하지 않는다 ⑤’ 까지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의 여가활동참여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64로 나타났다. 생활만족 측정 도는 1994년 양옥경에 의해 개발된 척도를 바탕으로 진용관(2003), 김동선(2003)이 자신의 연구에 맞게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생활만족도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926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장애유형에 따른 여가활동참여의 차이점 검증결과 전체여가활동은 지체장애인(4.01)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각·언어장애인, 뇌 병변 장애인, 시각 장애인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해보니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지체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는 전체 생활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영역별로는 인간관계만족($R^2=.256$), 행복감만족($R^2=.238$), 자율·자아감만족($R^2=.226$)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정적인 여가활동만이 인간관계만족도, 일·직업만족도, 사회·여가만족도, 행복감, 자율성·자아감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뇌 병변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유형은 전체 생활만족도와 일·직업만족($R^2=.261$), 경제만족($R^2=.276$), 사회·여가생활만족($R^2=.254$), 행복감만족($R^2=.352$), 자율·자아감만족($R^2=.494$)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사회 참여적 여가활동만이 인간관계만족도, 일·직업만족도, 사회·여가만족도, 행복감, 자율성·자아감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활동유형을 살펴보면 여가활동유형은 생활만족도 중 인간관계만족($R^2=.210$), 경제만족($R^2=.218$)만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여행관련 여가참여는 인간관계만족도에만 유의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락적 여가는 인간관계만족도, 경제만족도, 사회·여가만족도 및 행복감에 부적영향을 가지며, 문화·예술적 여가활동도 경제만족도에 부적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언어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유형이 전반적으로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하위영역별로 여가활동참여유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적 여가활동이 사회·여가생활만족도($\beta=.496$)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한정적인 여가활동참여가 자율성·자아감만족도($\beta=.409$)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정적 여가활동이 자율성·자아감만족도에, 문화·예술적 여가활동이 사회·여가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장애인 생활만족도 이론적 고찰

1. 장애인 생활만족도 개념 정의

장애인 복지 환경에 적용이 가능한 장애인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장애인 생활만족의 개념에 대해서도 논의가 분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장애인 생활만족의 의미가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검토한 후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도록 하겠다.

생활만족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노이가르텐에 의하면 생활만족이란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며, 긍정적 자아상과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또 생활만족도는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적어도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효율적으로 주위의 환경과 잘 대응해 정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 없이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생활 만족도는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적어도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효율적으로 주위의 환경과 잘 대응해 나가 정신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 몇 가지 정의를 더 살펴보겠다.

- Lehmen(1998) -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개인 자신의 주관적인 인지와 평가¹⁾
- 양옥경(1994) -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의식주, 친구관계, 가족 및 친척관계, 신체 및 정신건강, 경제, 대인관계, 사회생활 및 여가활동, 행복감, 자율성 영역에 대한 주관적 만족의 포함²⁾
- 김민녀, 채규만(2006) - 한 개인이 자신의 목표와 욕구를 어느 정도

1) A. F. Lehmen., (1998), "A Quality of life interview for the Chronically Mentally ill", *Valuation program Planning* 11, pp.51-62.

2) 양옥경(1994) "삶의 만족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회. 24, pp.157-198.

달성했는가 하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상태를 의미³⁾

- Hawkins(1968) - 결혼생활의 모든 면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행복, 즐거움, 만족 등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이것은 태도이며 개인의 특성⁴⁾
- 이정숙(2010) - 한 개인이 가지는 기대와 그 사람이 실제로 받는 보상 사이의 일치 정도, 결혼만족은 기대와 보상 사이의 일치 정도 이외에 더욱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는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진 반응⁵⁾
- 이익섭, 신은경, 이민규, 이범석(2007), 이중섭(2010), Diener(1984) - 개인이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 가를 자신이 인지하고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본인이 인지하고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주관적 만족감.⁶⁾⁷⁾⁸⁾
- 손현미(1994) - 생활만족도를 개인의 정신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며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개인의 기대수준이 합리적으로 충족되었는가에 대한 평가
- Neugarten - 생활만족도를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의 기쁨, 자신의 생활에 대한 의미와 책임감, 자신의 목적 성취, 긍정적 자아상과 자아가치를 느끼고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
- 최혜경 - 개인의 기대와 충족도의 일치에서 오는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현상, 김명자는 생활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인 감

3) 김민녀·채규만(2006),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기혼자의 결혼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건강』, 한국심리학회. 11(4), pp.655-671.

4) J. L. Hawkins, (1968). “Associations between Companionship, Host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4). p.85.

5) 이정숙. (2010).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p.32

6) 이익섭, 신은경, 이민규, 이범석, (2007), “척수 손상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장애와 고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17(2) pp.31-53

7) 이중섭, (2010), “장애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학회. 47, pp.187-212.

8) E. diener,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pp.548-575.

정이자 일종의 태도라고 정의

- 이해숙 - 전 생애를 통한 연속적이고 과정적인 의미로서 자신이 기대하던 인생과 현재 자신이 살아가는 생활과의 합일 정도라고 정의
- George - 생활만족도가 주로 “사기(morale)”또는 “행복감(happiness)”이라는 개념과 상호 교환적으로 또는 혼용되어 오고 있음에 대해 세 가지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

전반적 평가개념으로서 생활만족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사실 장애인 행동 연구의 관점과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측정 수준에서 만족 개념은 연구 상황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생활만족도란 개인이 정신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며, 개인은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을 통해 자신에 적절한 행동, 태도 그리고 기대 수준이 형성되면 이러한 기대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생활만족도란 개인의 기대 수준이 합리적으로 충족되는가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겠다. 둘째 방법 역시 사전기대-수행 관점을 따르고 있는데 다만 측정방식에 있어서 기대 점수와 수행 점수를 각각 도출하여 생활만족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개인 자신의 주관적인 인지와 평가이다. 셋째 방식은 생활만족이란 자신의 삶에 대하여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물질적, 경제적 조건을 포함한 개인의 인적, 문화적 사회 환경 등에서의 만족이나 안녕감 또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의식주, 친구관계, 가족 및 친척관계, 신체 및 정신건강, 경제 대인관계, 사회생활 및 여가활동, 행복감, 자율성 영역에 대한 주관적 만족이 포함된다.

위와 같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Otto(1997)와 Pursak (1997)등과 같이 장애인 생활만족을 사전기대-기대충족으로 좁게 해석하는 견해와 Wiigs (1997)과 Quintas(1997)등과 같이 장애인 생활만족을 프로세스적 관점으로 넓게 해석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장애인 생활만족 개념을 좁은 의미로 파악하면 장애인 생활만족을 지식정보관리로 생각하는 학자들의 부류로서 장애인 생활만족은 정보시스템이나

그룹웨어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들에게는 만족이란 곧 정보시스템이 취급하는 대상을 의미하며 이러한 혁신은 정보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명시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정보관리방식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매우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장애인 생활만족을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학자들은 장애인 생활만족을 기존에 존재해 왔던 조직관리나 인간경영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학자들로써 이들은 심리학, 철학, 사회학 등의 학문적 바탕을 두고 있다. 이들에게 지식은 곧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은 끊임 없이 변화하는 복잡한 일련의 기술, 노하우 등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2. 장애인 생활만족도 선행연구

장애인생활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강미경(2010), 백은령(2010), 이중섭(2010) 등이 있다. 본 절에서는 장애인생활 만족도에 관한 최신 선행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강미경(2010) 연구

강미경(2010)은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장애유형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 실태를 알아보고, 장애유형별 여가활동참여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여가활동유형과 참여정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장애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체, 뇌병변, 시각·청각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경상남도에 위치한 10곳의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12곳의 농아인협회, 11곳의 시각장애인 연합회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물리치료실과 여가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지체, 뇌병변, 시각·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가설인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정도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장애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검증결과는 전체여가활동은 지체장애인(4.01)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각·언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해보니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 번째 가설인 장애인의 생활만족수준은 어떠하며 장애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검증결과 생활만족도가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청각·언어장애인(2.74)이 가장 높았고, 뇌병변장애인(3.16)이 가장 낮았고 장애유형별 차이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청각언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 간에 그리고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 중 ‘의식주 만족’은 청각·언어장애인(2.6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애유형별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관계만족’은 청각·언어장애인(2.4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간관계만족 중 친구관계만족과 이성·배우자 간의 만족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정신건강만족’은 청각·언어장애인(2.9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 신체건강만족과 정신건강만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가설인 장애유형별 여가활동참여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에 대한 검증결과 먼저 지체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는 전체 생활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영역별로는 인간관계만족($R^2=.256$), 행복감만족($R^2=.238$), 자율·자아감만족($R^2=.226$)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정적인 여가활동만이 인간관계만족도, 일·직업만족도, 사회·여가만족도, 행복감, 자율성·자아감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뇌병변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유형은 전체 생활만족도와 일·직업만족($R^2=.261$), 경제만족($R^2=.276$), 사회·여가생활만족($R^2=.254$), 행복감만족($R^2=.352$), 자율·자아감만족($R^2=.494$)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사회참여적 여가활동만이

인간관계만족도, 일·직업만족도, 사회·여가만족도, 행복감, 자율성·자아감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활동유형을 살펴보면 여가활동유형은 생활만족도 중 인간관계만족($R^2=.210$), 경제만족($R^2=.218$)만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여행관련 여가참여는 인간관계만족도에만 유의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락적 여가는 인간관계만족도, 경제만족도, 사회·여가만족도 및 행복감에 부적영향을 가지며, 문화·예술적 여가활동도 경제만족도에 부적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언어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유형이 전반적으로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하위영역별로 여가활동참여유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적 여가활동이 사회·여가생활만족도($\beta=.496$)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한정적인 여가활동참여가 자율성·자아감만족도($\beta=.409$)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정적 여가활동이 자율성·자아감만족도에, 문화·예술적 여가활동이 사회·여가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백은령(2010) 연구

백은령(2010)은 “노령 지체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노령지체장애노인의 신체기능, 장애정도, 경제상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차별이 매개한다는 가정 하에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장애인 실태조사는 2008년 9월 6일~ 2008년 11월 10일까지 80일간 68명의 전문조사원에 의해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실시되었다. 조사 표본은 2008년 3월말 기준의 전국의 등록 장애인 2,137,226명을 모집단으로부터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적용하여 등록 장애인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 표본이다. 본 연구는 원자료 중 60세 이상의 지체장애인 38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노령 지체장애인의 신체기능, 장애정도, 경제상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차별경험과 차별인식이 매개한다는 가정 하에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차별경험의 경우 장애정도, 경제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정도와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차별경험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차별인식의 경우 경제상태, 차별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차별인식은 낮아지며 차별경험이 높을수록 차별인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만족도의 경우 신체기능, 경제상태, 차별경험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신체적 기능과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도 높았으며 차별경험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변수들 간의 간접효과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장애정도와 경제상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차별경험이 매개하는 효과가 유의하였으며, 장애정도와 경제상태가 차별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차별경험이 매개하는 효과가 유의하였다.

3) 이중섭 (2010) 연구

이중섭(2010)은 “빈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빈곤 장애인의 생활만족 실태와 함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독립변수들을 추출하였으며 이들이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만약 영향을 미친다면 그 상대적 중요도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이며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2008년 5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약 5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의 표집은 장애인단체의 도움을 얻어 단체에 등록된 회원 중 본 조사의 설문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장애인 대상자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과 조사원이 장애인 단체에 일정기간상주하면서 이곳을

방문한 장애인들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회수된 설문은 총 3,452부였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설문지는 3,155부였다. 이중 본 연구를 위해 선별된 조사대상자는 2008년 현재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비를 지원받은 20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1,723명이다.

첫 번째 가설인 장애유형별 생활만족 정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장애유형과 장애등급별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F=3.564$, $p<.001$)와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 ($F=2.914$, $p<.001$), 교제하고 있는 친구의 수에 대한 만족도($F=3.325$, $p<.001$), 건강에 대한 만족도($F=2.522$, $p<.01$), 생활공간에 대한 만족도($F=1.898$, $p<.05$), 수입에 대한 만족도 ($F=2.411$, $p<.01$),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F=3.226$, $p<.001$)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유형별로 생활만족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에서는 생활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한 가족관계($F=8.427$, $p<.001$), 현재 삶($F=2.980$, $p<.05$), 교제하고 있는 친구 수($F=2.982$, $p<.05$), 건강($F=4.040$, $p<.01$), 수입($F=6.364$, $p<.001$) 그리고 여가활동 만족도($F=6.449$, $p<.001$)에서 장애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가생활만족도의 경우 장애등급이 중증일수록 낮게 나타난 반면, 가족관계 만족도는 경증보다는 중증의 장애인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 가설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빈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인구학적 요인과 관련된 변수 즉,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만을 투입한 결과 연령($p<.05$)과 배우자의 유무만($p<.05$)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연령은 낮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보다는 있는 장애인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인구학적 요인이 생활만족의 정도를 설명하는 조정 결정계수(adjusted R^2)는 0.8%였고 F값은 4.220으로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모델 2>는 인구학적 요인을 포함한 경제적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경제학적 요인에 투입된 변수는 직업유무, 월평균소득, 그리고 계층적 소속감을 입력방식으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학적 요인에서는 연령이 탈락하고 배우자 유무($p<.01$)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수로 작용하였고 경제학적 요인에서는 월평균 소득($p<.05$)과 계층적 소속감($p<.001$)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월 소득은 낮을수록, 계층적 소속감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델 3>은 차별경험정도, 교통편리함정도, 집구조의 편리함정도, 외출빈도로 구성된 사회적 요인을 인구학적요인과 경제학적 요인과 함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인구학적 요인에서는 연령요인($p<.001$)과 배우자 유무 요인($p<.01$), 경제적 요인에서는 월 소득이 탈락하고 계층적 소속감($p<.05$)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투입한 사회적 요인에서는 차별경험정도($p<.001$)와 집구조의 편리함 정도($p<.001$) 그리고 외출빈도($p<.00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차별경험정도가 낮고, 집구조의 편리함 정도와 외출빈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가 경제적 요인보다도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보여준다. 사회적 요인이 투입된 모델 3의 F값은 22.597로 회귀모형도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모델 4>는 인구학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에 기본적인 일상생활능력정도와 수단적 일상생활능력 정도를 포함한 신체적 능력요인을 포함하여 빈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것이다. 인구학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에서는 모델3에서와 같이 연령, 배우자유무, 계층적 소속감, 차별경험정도, 집구조의 편리함정도, 그리고 외출 빈도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수로 나타났고, 새로 투입한 신체적 능력요인에서는 장애등급($p<.05$)과 IADL($p<.01$)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인구학적 요인과 경제학적 요인, 그리고 사회학적 요인에 신체적

능력요인을 투입한 모델 4의 조정결정계수는 12.6%였고 F값 역시 18.69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모델 5>는 인구학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과 신체적 요인에 정책적 요인을 포함하여 빈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분석한 것이다. 모델 4와 비교했을 때, 모델 5의 경우 인구학적 요인에서는 학력($p<.05$)요인이 추가되었고 경제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에서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수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신체적 능력요인에서 장애등급이 탈락하고 기본적인 일상생활 의존 정도를 의미하는 ADL($p<.05$)이 모두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모델 5에서 새롭게 투입한 정책적 요인인 장애등록에 따른 혜택정도와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만족정도는 모두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장애등록에 따른 혜택정도와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수를 투입한 분석모델 5의 설명력은 16.7%였고 F값 역시 22.62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4) 김성진(2009) 연구

김성진(2009)은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에 따른 자신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가 자신감 및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 지체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정도를 알아봄으로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심리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A시와 B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9년 2월까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성인 지체장애인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표집방법은 상기 지역에 소재하며, 장애인 복지 체육관, 직업 재활원, 동호인 클럽을 집락표본추출법(cluster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여 집락을 추출하였다. 각 집락에서 단순임의 표집법을 적용하여 총 35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이들 중 설문지 응답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48명을 제외한 302명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성별에 따른 자신감 및 생활만족도 비교에서 성별에 따른 자신감의 하위변인 중 능력입증의 남자 11.19 ± 1.95 , 여자 10.20 ± 1.68 과 지도자 지도력의 남자 11.23 ± 1.85 , 여자 10.12 ± 1.90 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으며,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p < .01$). 생활만족도의 하위변인 중 과거, 현재, 미래 생활만족도에서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체적인 생활만족도 수준이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원인에 따른 자신감 및 생활만족도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원인에 따른 자신감의 하위변인에서 전체적으로 선천적 장애인보다 후천적 장애인의 자신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생활만족도에서는 과거와 현재 생활만족도 수준이 선천적 장애인이 후천적 장애인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 생활만족도에서는 후천적 장애인이 선천적 장애인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등급에 따른 자신감 및 생활만족도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등급에 따른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자신감의 하위변인인 능력입증, 사회적 지지, 지도자 지도력, 신체적·정신적 준비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생활만족도에서는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과거, 현재, 미래 생활만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 생활만족에 있어서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넷째, 연령에 따른 자신감 및 생활만족도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에 따른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자신감에 대한 하위변인의 전체적 수준이 20대와 30대의 연령층이 10대, 40대, 50대 이상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적 지지와 신체적/정신적 준비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생활만족도

에서는 하위변인인 과거, 현재, 미래생활만족에서 20대, 30대의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생활만족($p < .05$)과 미래생활 만족($p < .01$)에 있어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직업에 따른 자신감 및 생활만족도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에 따른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자신감에 대한 하위변인의 전체적인 수준이 자영업과 전문직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능력입증과 지도자 지도력, 신체적/정신적 준비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생활만족도에서도 하위변인인 과거, 현재, 미래생활만족의 수준이 자영업과 전문직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하위요인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p < .01$).

여섯째, 종목에 따른 자신감 및 생활만족도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목에 따른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자신감의 하위변인인 능력입증에서는 볼링이나 탁구에 참가하는 집단보다 기타종목의 집단이 높게 나타났고($p < .05$), 신체적/정신적 준비에서도 수영보다 기타종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생활만족에서는 현재생활만족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거생활만족에서는 배드민턴과 수영보다 기타종목이 높게 나타났다($p < .05$). 또한 미래생활만족에서도 기타종목이 다른 종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5) 정복자(2005) 연구

정복자(2005)는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이 생활만족도와 비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활동이 생활만족도 및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장애인의 스포츠활동 참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하였다.

연구의 조사대상은 2004년 5월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장애인(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423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첫째, 스포츠활동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체장애인의 스포츠활동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체지방율이 평균 2.8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리둘레도 5.81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생활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4.87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스포츠활동 참여가 지체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지각능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경우 BMI, 체지방율, 허리둘레 등 비만측정요인에서 스포츠활동에 참여한 집단이 감소된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경우 스포츠활동의 참여기간이 지체장애인보다 짧았으며 참여횟수도 낮아 통계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장기간 주 5회이상 실시한다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비만과 생활만족도와 지각능력이 좋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비만 측정요인(BMI, 체지방율, 허리둘레)과 생활만족도의 변화량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의 비만측정요인인 BMI의 한 단위가 올라갈 때마다 생활만족점수가 -.81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체지방율이 높아질때마다 .074 감소하며 허리둘레가 커질때마다 생활만족도점수가 .015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만의 측정요인인 BMI, 체지방율, 허리둘레가 생활만족도 점수를 높여주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1$)

셋째, 스포츠활동 참여정도(기간, 빈도, 시간)와 생활만족도의 변화량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스포츠활동 참여기간의 한 단위가 길어질 때 생활만족도의 점수 .078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스포츠활동 참여기간이 길어질 때마다 생활만족도도 같이 높아는데 기여한 것으로 예측된다. 스포츠활동 참여빈도의 한 단위가 높아질 때 생활만족도의 점수가 .390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스포츠활동참여 1회 시간이 길어질 때 생활만족도 점수가 .116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변화량을 설명해주는 전체 결정계수는($R^2=.035$) 3.5%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포츠활동 참여기간, 빈도, 시간이 생활만족도 점수를 높여주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p<.001$). 그러므로 장애인들도 스포츠활동의 시간이 길수록, 참여기간이 길수록 생활만족이 좋아진다고 사료되며 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보다 더 스포츠활동의 참여가 높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뒷받침해줄 사회적 구조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6) 유공순 (2010) 연구

유공순(2010)은 “중·노년 지체장애인 실태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60대 이상의 노년 지체장애인 뿐만 아니라 40,50대의 중년지체장애인을 포함하여 그들의 생활실태를 살펴보고 중·노년 지체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2005년도에 실시된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40세 이상 중·노년 지체장애인 231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장애인실태조사는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이루어졌으며 조사표는 가구 및 판별조사표와 개별조사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기초로 두 가지 조사표에서 본 연구에 부합되는 변수들을 선택하여 분석하는데 활용하였다.

첫 번째, 중·노년 지체장애인의 실태는 어떠한지 연령대에 따라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은 남성이 1373명 59.4%, 여성이 939명 40.6%으로 나타나 남성이 더 많았다. 연령에 따른 성별을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성인구가 감소하고 여성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였다($\chi^2=118.434$ $p=.000$). 학력은 전체의 48.2%가 초·중

이하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학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른 학력은 40대의 경우 고퇴 · 졸이 전체의 39.2%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60대는 초퇴 · 졸이 37.2%, 45.4% 로 가장 많았으며 70대 이상은 무학이 42.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저학력자의 분포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656.095$ $p=.000$). 결혼 상태를 보면 유배우자(1619명 70.0%)이 가장 많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유배우자가 연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별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적 실태는 구체적으로 수급자 여부를 보면 아님이 1983명(85.8%), 일반수급자가 294명(12.7%), 조건부수급자가 15명(0.6%), 의료교육자활특례자가 20명(0.9%)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을 보면 100만원 미만이 59.3% 에 달해 경제적 수준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월평균소득을 보면 40대에서는 100-150만원이 34.6% 로 가장 많았으나, 70대를 넘어서면 50만원 미만이 77.4%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chi^2=174106$ $p=.000$). 총 가구소득에서도 100만원 미만이 46.2% 로 경제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에 따라서는 40대에서는 100-150만원 미만이 40.1% 로 가장 많았으나 60대에는 50-100만원 미만이 40.5% 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되면 50만원 미만이 77.4% 로 나타나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가구소득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chi^2=199.390$ $p=.000$). 주소득원은 가구주 소득이 1137명(49.2%) 으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가족, 친척에 의한 소득이 78.3% 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변화를 보면 가구주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원 소득 역시 60대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85829$ $p=.000$). 주거형태를 보면 단독주택이 1,260명(54.5%) 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에 따른 주거형태에서도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거소유형태를 보면 자가 1545명(66.8%)으로 가장 많았으나 월세나 무상 거주 등도 21.6% 에 달했다. 연령에 따라 자가소유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chi^2=70930$ $p=.000$).

생활환경 및 사회활동실태는 집구조 편리정도에 대한 응답 차이를 보면 40대 ($M=2.81$, $SD=0.753$)가 가장 높았으며 50대 ($M=2.78$ $SD=0.692$) 60대 이상($M=2.69$ $SD=0.731$) 70대이상($M=2.59$ $SD=0.807$)의 순으로 나타났다($F=9.915$ $p=.000$).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집구조의 편리정도 점수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년간 외출정도의 차이를 보면 40대 ($M=3.72$ $SD=0.587$)가 가장 낮았으며 50대($M=3.75$ $SD=0.576$) 60대 이상($M=3.59$ $SD=0.682$) 70대 이상($M=3.29$ $SD=1.017$)의 순으로 나타났다($F=45.275$ $p=.000$). 즉 40대에서 50대는 약간 높아졌다가 50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사후검정결과를 보면 40대와 50대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다른 연령대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집 밖 활동 불편정도의 차이를 보면 40대 ($M=2.38$ $SD=0.978$)가 가장 높았으며 50대($M=2.45$ $SD=0.932$) 60대 이상($M=2.66$ $SD=0.907$) 70대 이상($M=3.17$ $SD=0.876$)의 순으로 나타났다($F=74.921$ $p=.000$)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집밖활동 불편정도의 점수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후검정결과를 보면 40대와 50대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다른 연령대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가활동 만족도의 차이를 보면 40대($M=2.36$ $SD=1.029$), 50대($M=2.35$ $SD=0.970$), 60대 이상($M=2.42$ $SD=0.953$), 70대 이상($M=2.23$ $SD=0.993$)으로 나타나 60대에서는 높아졌다가 70대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3.446$ $p=0.016$). 우리나라 장애인의 차별정도에 대한 평가를 보면 40대($M=3.27$ $SD=0.632$)가 가장 높았으며 50대 ($M=3.24$ $SD=0.753$), 60대 이상($M=3.15$ $SD=0.780$), 70대 이상($M=3.12$ $SD=0.76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F=5.694$ $p=.001$)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차별정도에 대한 평가 점수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후검정결과를 보면 40대와 60대 70대 이상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연령대에 따른 중·노년기 지체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수준은 어떠한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령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구체적으로 70대 이상($M=3.08$ $SD=0.931$)이 가장 높았으며 40대 ($M=2.84$ $SD=0.797$) 60대 이상 ($M=2.83$ $SD=0.735$) 50대 ($M=2.78$ $SD=0.77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F=14.589$ $p=.000$)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과, ADL, IADL이 감소되었던 것과는 상반되게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 점수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후검정결과를 보면 70대와 40,50,60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중·노년 지체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사항 변인 중에서 성별은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관찰되었다 ($t=2.505$ $p=.012$). 즉 남자가 여자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학력이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t=2.450$ $p=.015$). 즉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점수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월평균소득은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관찰되었다($t=2.287$ $p=.023$). 즉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장애 및 건강상태 중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다른 변수들(장애등급, ADL, IADL, 보조기구 소지여부)은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는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t=3.178$ $p=.002$)으로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생활환경 변인 중에서 집구조의 편리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t=2.912$ $p=.004$). 즉 집구조, 편리성 정도가 양호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집박활동불편정도와 교통수단 이용편리정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구소득은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관찰되었다($t=2.287$ $p=.023$). 즉 추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주관적 경제상태가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매우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t=2.429$ $p=.016$). 즉 주관적 경제상태가 하층으로 갈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장애 및 건강상태 중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는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관찰되었다($t=2.636$ $p=.009$). 즉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생활만족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생활환경 변인 중에서 집박활동불편정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t=2.146$ $p=.033$). 집박활동불편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교통이용불편정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t=2.409$ $p=.017$). 즉 교통이용불편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집구조의 편리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t=2.301$ $p=.023$). 즉 집구조 편리성 정도가 양호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7) 유영무(2006) 연구

유영무(2006)는 “장애인의 재활운동 참여형태가 생활만족도 및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장애인의 재활운동 참여 형태가 자신감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장애인 재활운동에 대한 필요성과 의의를 환기시키고 나아가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S 재활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중 현재 재활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1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첫째, 장애인의 재활운동 참여형태(운동기간, 빈도, 지속시간)는 자신감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장애인의 재활운동 참여 형태에 따른 자신감의 차이를 보면 운동기간, 운동빈도, 운동지속시간에 따른 자신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운동기간을 보면 3개월 미만이 35.9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3-6개월 미만 45.05점으로 6-12개월 미만 53.52점, 1년 이상 51.92점 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운동기간이 길수록 자신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운동빈도를 보면 1-2일이 33.7점으로 3-4일 47.50점, 매일 51.15점, 5-6일 51.93점보다 낮게 나타나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자신감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운동지속시간을 보면 30분이 29.6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2시간 이상이 52.78점으로 1시간 46.19점, 2시간 46.19점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운동지속시간이 길수록 자신감 또한 높았다. 장애인의 재활운동 참여형태에 따른 자신

감 차이의 사후검정은 운동기간에서는 같은 C인 6-12개월 미만의 그룹과 1년 이상의 그룹은 차이가 없지만, 6-12개월 미만, 1년 이상의 그룹은 3개월 미만의 그룹과 3-6개월 미만의 그룹과 차이가 있다. 운동빈도에서는 같은 B인 매일, 3-4일, 5-6일 그룹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매일 3-4일, 5-6일 그룹은 1-2일 그룹과 차이가 있다. 운동지속시간에서는 같은 B인 1시간 그룹과 2시간 그룹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1시간 2시간 그룹은 30분 그룹과 2시간 이상의 그룹과 차이가 있다.

둘째 장애인의 재활운동 참여형태(운동기간, 빈도, 지속시간)는 생활만족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장애인의 재활운동 참여 형태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보면 운동기간, 운동빈도, 운동지속시간에 따른 생활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운동기간을 보면 3개월 미만이 41.43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3-6개월 미만 48.55점으로 6-12개월 미만 62.81점, 1년 이상 60.71점 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운동기간이 길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운동빈도를 보면 1-2일이 39.50으로 3-4일 54.59점, 매일 58.15점, 5-6일 59.07점보다 낮게 나타나 운동을 많이 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운동지속시간을 보면 30분이 36.13점으로 2시간 이상 59.56점, 1시간 53.53점, 2시간 53.10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운동지속시간이 1시간 이상에서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 재활운동 참여형태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의 사후검정은 운동기간에서는 같은 C인 6-12개월 미만의 그룹과 1년 이상의 그룹은 차이가 없지만, 6-12개월 미만, 1년 이상의 그룹은 3개월 미만의 그룹과 3-6개월 미만의 그룹과 차이가 있다. 운동 빈도에서는 같은 B인 매일, 3-4일, 5-6일 그룹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매일 3-4일, 5-6일 그룹은 1-2일 그룹과 차이가 있다. 운동지속시간에서는 같은 B인 1시간 그룹과 2시간 그룹, 2시간 이상의 그룹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1시간, 2시간, 2시간 이상의 그룹은 30분 그룹과 차이가 있다.

셋째, 장애인의 재활운동 참여형태(운동기간, 빈도, 지속시간)에 따라 자신감 및 생활만족 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자신감과 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르르 보면 Pearson 상관계수 .834

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 자신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의 재활운동 참여형태, 자신감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보면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재활운동 참여 형태인 운동기간, 운동빈도, 운동지속시간과 자신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자신감과 운동기간이 유의하게 나타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설명력 R^2 는 .729로 자신감과 재활운동 참여 형태가 생활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72.9%였다.

8) 이중섭 (2010) 연구

이중섭(2010)은 “장애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장애노인의 생활만족 실태와 함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향후 노인복지정책이 지향해야 할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하였다.

연구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이다. 조사대상자의표집은 장애인단체의 도움을 얻어 단체에 등록된 회원 중 본 설문에 동의한 장애인 대상자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식과 조사원이 장애인 단체에 일정기간 상주하면서 이곳을 방문한 장애인들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기간은 2008년 5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약 5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지적장애와 정신장애를 가진 노인은 생활만족 연구의 특성상 그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회수된 설문은 총 906부였고 무응답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설문지는 876부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5.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그리고 등급별 생활만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ANOVA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성별에 있어서는 각 생활만족의 영역별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에 있어서는 가족관계와 수입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등

급에 있어서는 가족관계만족과 여가생활만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만족은 장애정도가 중증일수록, 수입만족은 경증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인구학적 요인에서는 동거가족수($p<.01$)가 생활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요인만을 투입한 <모형 1>의 조정결정계수는 4.3%이고 F값은 6.685으로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p<.001$)

인구학적 요인에 경제적 변인을 추가한 <모형 2>에서는 계층적 소속감($p<.01$)이 생활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노인의 생활만족은 객관적인 경제적 지위보다는 자신이 인지하는 주관적인 경제상태가 보다 중요한 결정요인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제적 요인을 투입한 <모형 2>의 조정결정계수는 6.0%이고 F값은 5.524로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사회적 요인을 투입한 <모형 3>의 경우, 인구학적 요인에서 배우자 유무($p<.05$)가 추가되었고 사회적 요인에서는 주거형태($p<.05$), 집구조의 편리함정도($p<.001$), 외출빈도($p<.01$) 그리고 여가활동참여정도($p<.001$)가 생활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출빈도와 여가생활만족정도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결과는 장애노인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과 외부활동의 참여가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과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요인을 투입한 <모형 5>에서는 사회적 요인의 주거형태와 외출빈도가 탈락하고 도움제공자 유무($p<.001$)가 추가되었고, 신체적 요인에서는 수단적일상생활수행능력을 의미하는 IADL($p<.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강미경(2009) 연구

강미경(2009)은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유형과 참여정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여가활동 유형들이 생활만족도의 구성요인들 각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여가활동유형과 참여정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서베이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표본은 비확률표집에 해당하는 유의표집의 방법에 의해 추출하였다. 또한 장애인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체, 뇌병변, 시각·청각·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든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시각장애인연합회, 농아인협회를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이 모집단 중 경상남도에 위치한 10곳의 장애인종합복지관과, 12곳의 농아인협회, 11곳의 시각장애인연합회를 유의표집에 의해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조사대상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정도는 어떠하며, 장애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여가활동을 여가유형에 따라 정적인 여가활동, 체육관련 여가활동, 여행관련 여가활동, 문화예술적 여가활동, 사회적 여가활동, 여행관련 여가활동, 문화예술적 여가활동, 사회적 여가활동, 오락적 여가활동 등으로 구분하였다. 여가활동참여도는 평균점수가 1점에 가까울수록 여가활동참여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5점에 가까울수록 여가활동참여빈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먼저 전체적인 여가활동참여정도는 평균 4.06으로 나타났고, 여가활동 참여유형별로 살펴보면, 오락적여가(M=3.78), 정적인여가(M=3.81), 사회참여적여가(M=3.87), 여행관련여가(M=3.95), 체육관련여가(M=4.34), 문화예술적여가(M=4.59) 순서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유형의 참여수준이 낮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TV보기(M=1.72)처럼 소극적 실내활동에 대한 참여수준이 가장 높았던 반면, 태권도, 격투기(M=4.98)같은 적극적 신체활동에 대한 참여수준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들이 신체적인 여가활동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체 여가활동은 지체장애인(4.01)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각·언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순으로 참여정도가 나타났

다. 장애유형별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해보았더니 F값은 3.964이고 유의도는 $p<.01$ 로서 조사대상자의 여가활동참여는 장애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가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적여가활동은 청각·언어장애인(3.60)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순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적여가활동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컴퓨터활용($F=6.502, p<.001$), 신문잡지 보기($F=4.971, p<.01$), 생활공예($F=3.358, p<.05$)는 장애유형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관련활동은 전체적으로 참여도가 낮은 가운데 청각·언어장애인(3.60)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순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에 따른 체육관련 여가활동에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걷기($F=6.925, p<.01$), 달리기($F=3.26, p<.05$), 자전거타기($F=2.935, p<.05$) 인라인($F=2.935, p<.05$), 양궁·사격($F=4.501, p<.01$), 구기종목($F=10.445, p<.001$), 스포츠관람($F=3.772, p<.01$)은 장애유형별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관광관련 여가활동참여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언어장애인(3.77)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순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관련여가활동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해외여행($F=2.768, p<.05$), 온천·찜질방($F=3.928, p<.01$), 바다·유람선($F=7.206, p<.001$), 쇼핑($F=6.158, p<.001$), 낚시($F=4.700, p<.01$)는 장애유형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여행, 소풍·나들이는 장애유형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적 여가활동참여는 지체장애인(4.54), 뇌병변장애인(4.54)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각·언어장애인, 시각장애인 순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적 여가활동참여도는 장애유형 모두 4.50점을 넘는 참여도가 나타나 모든 장애인들의 참여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미술활동($F=4.119, p<.01$), 문화행사 참여($F=4.373, p<.01$), 노래교실($F=4.155, p<.01$), 영화관람($F=4.534, p<.01$),

전회·공연관람($F=3.209$, $p<.05$)은 장애유형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예, 악기연주, 전통예술, 발레·무용, 사진촬영은 장애유형별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적 여가활동에는 청각·언어장애인(3.77)이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순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사회참여적 여가활동참여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봉사활동($F=4.229$, $p<.01$)과 장애인단체활동($F=7.003$, $p<.001$)은 장애유형별 집단 간 통계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적 여가활동참여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영역들이 장애유형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컴퓨터게임($F=8.869$, $p<.001$), TV시청($F=6.844$, $p<.001$), 라디오·음악듣기($F=38.008$, $p<.001$), 노래방이용($F=6.662$, $p<.001$)은 통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럽이용하기와 음주는 장애유형별 집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 장애인의 생활만족수준은 어떠하며, 장애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 전체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청각·언어장애인(2.74)이 가장 높았으며 지체장애인(2.91), 시각장애인(2.95), 뇌병변장애인(3.16) 순이었다. 전체 생활만족도가 장애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본 결과 $F=2.469$, $p<.01$ 로 장애유형별 집단 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유형별로 여가활동참여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지체장애인의 정적여가활동은 의식주만족($r=.387^{**}$), 인간관계만족($r=.409^{**}$), 일·직업만족($r=.307^{*}$), 사회·여가생활만족($r=.374^{**}$), 행복감만족($r=.514^{**}$), 자율자아만족($r=.37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또 여행·관광관련 여가활동은 의식주만족($r=.342^{**}$), 인간관계만족($r=.364^{**}$), 행복감($r=.285^{*}$), 자율자아만족($r=.298^{*}$)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문화·예술적 여가활동은 자율자아만족($r=.270^{*}$)과 정적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고, 사회 참여적 여가활동은 의식주만족($r=.255^*$), 사회·여가생활만족($r=.283^*$)과 정적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반면 지체장애인의 체육관련 여가와 오락적 여가는 생활만족도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뇌병변장애인의 정적여가활동은 사회·여가활동만족($r=.403^{**}$)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고, 체육관련 여가활동은 일·직업만족도($r=.317^*$), 경제만족($r=.312^*$), 사회·여가생활만족도($r=.364^{**}$)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문화·예술적 여가활동은 일·직업만족($r=.295^{**}$), 사회·여가생활만족($r=.345^*$), 자율자아만족도($r=.292^*$)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사회 참여적 여가활동은 일·직업만족($r=.470^{**}$), 경제만족($r=.417^{**}$), 사회생활·여가생활만족($r=.527^{**}$), 행복감만족($r=.551^{**}$), 자율자아만족도($r=.628^{**}$)와 통계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 오락적 여가활동은 사회생활·여가생활만족($r=.345^*$), 자율성·자아감만족도($r=.292^*$)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병변장애인의 여행관련 여가활동은 생활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각장애인의 생활만족도와 여가활동참여와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여가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와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여행관광관련 여가의 증가는 의식주만족($r=.341^{**}$), 인간관계만족도($r=.356^{**}$)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문화·예술적여가참여의 증가는 의식주만족($r=.314^*$)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 시각장애인의 오락적 여가참여는 경제만족($r=-.313^*$)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각장애인은 오락적여가가 감소하면 생활만족도는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밖에 정적인여가, 체육관련 여가, 사회참여여가는 생활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각·언어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의 높은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문화·예술적 여가활동은 경제만족도($r=-.283^*$)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문화·예술적 여가활동은 사회생활·여가생활만족($r=.383^{**}$)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

였다. 이는 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적 여가활동참여가 증가하면 경제만족도는 감소하고 사회·여가생활만족도는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밖에 정적여가, 체육관련여가, 여행관련여가, 사회참여적여가, 오락적여가는 모두 청각·언어장애인의 생활만족도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10) 김희경(2008) 연구

김희경(2008)은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의 생활만족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중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2008년 4월 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하였고, 대전광역시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10개 단체 중 7개 단체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다. 총 270부를 배포하여 총 111부가 회수되었으며 통계처리가 불가능한 2부를 제외한 109부를 통계처리하였다.

첫째,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특성에 따라 신체적 차원, 심리적 차원, 삶의 질 차원에 따른 차이에 대한 검증은 실시하였다. 활동보조서비스 실시 전보다 신체건강이 좋아졌다는 질문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50.0%(52명), 그렇다 31.7%(33명), 보통이다 12.5%(13명), 그렇지 않다 5.8%(6명)을 나타내고 있어 81.7%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의 자신감 차원 정도에서는 매우 그렇다 46.2%(48명), 그렇다 37.5%(39명), 보통이다 14.4%(15명), 그렇지 않다 1.9%(2명)로 전체 조사 대상자중 83.7%가 신체적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나타났다. 세 번째로 활동보조서비스 후에 신체활동량 정도 질문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7.7%(8명), 그렇다 58.7%(61명), 보통이다 12.5%(13명), 그렇지 않다 13.5%(14명), 전혀 그렇지 않다 7.7%(8명)으로 66.4%가 의존하지 않고 신체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보조서비스 실시 후 심리적 차원에 대한 변화는 심리적(정신적)차원

요인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평균척도를 파악해 본 결과는 5점 척도로 4.27점으로 다소 높은 정도였다. 아울러 신체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의 하위영역을 비교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일상움직임’이 4.36점으로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심리적 차원에서는 ‘심리적 여유’영역이 4.43점으로 가장 높았다.

활동보조서비스 실시 후 삶의 질 차원에 대한 변화는 2005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삶의 만족도가 45%로 2000년 29%에 비해 크게 상승되었다. 따라서 삶의 질 척도 아울러 크게 상승되었으리라 추정하며 다음과 같이 분석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삶의 질 척도를 파악해본 결과는 5점 척도로 평균 4.32221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삶의 질 차원에서 가장 평균값이 높은 변수는 4.45점으로 가족관계가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평균값 변수는 경제적 정도로 3.38점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활동보조서비스가 인구학적 특성요인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성별, 연령, 국민기초수급여부,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 여부, 학력별, 결혼상태별 생활만족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본 결과 ‘결혼 상태’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파악하였다. 성별의 평균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남자 4.22점($p=.4849$)이 여자 4.27점($p=.556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40대를 분리점(cut point)로 하여 40대 미만은 평균 생활만족도 4.17점($p=.4853$)이 40대 이상 평균 생활만족도 4.31($p=.5426$)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학력항목에서는 중등졸을 분리점으로 하여 중등졸 미만은 4.25($p=.5618$)가 중등졸 이상 4.24($p=.4424$)로 소폭 낮은 것으로 나타나 Tek. 결혼상태 평균 생활만족도는 기혼을 분리점으로 하여 미혼·기혼은 4.70($p=.3484$)으로 기혼 또는 이혼 또는 사별별거는 4.22($p=.514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포도 더 넓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활동보조서비스가 활동보조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활동보조서비스 수혜기간과 생활만족도와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분리점(cut point)를 사용하여 파악하였다. 활동보조서비스 수혜기간은 9개월을 분리

점으로 9개월 미만 평균 생활만족도는 4.23점($p=.4930$) 9개월 이상 평균 생활만족도 3.96($p=.6134$)에 비해 평균점수가 소폭 높았다. 아울러 활동보조서비스 1회 이용기간, 수혜기간이 높을수록 평균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활동보조서비스 특성 중 활동보조서비스 1회 이용시간 평균을 살펴보면 5시간을 분리점(cut point)으로 하여 5시간이상 평균생활만족도가 3.99점($p=.6525$), 5시간미만 평균생활만족도는 4.27($p=.4986$)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특성요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에 대한 검증에 실시하였다. 장애특성별 생활만족도에는 장애유형과 장애발생과의 생활만족도간에 유의미한 경향이 있었으며 평균생활만족도는 분리점(cut point)를 사용하여 파악하였다.

장애유형의 평균생활만족도는 발달장애를 분리점으로 지체·지적·발달의 평균생활만족도 4.83점($p=.5662$)이 정신·시각·기타 장애유형은 4.16($p=.4739$)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원인은 분리점으로 사고·유전 요인이 평균생활만족도 4.19($p=.5634$)가 질병·원인불명 평균생활만족도 4.30($p=.4605$)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발생은 후천성을 분리점으로 하였고 선천적·후천적 평균생활만족도 3.91($p=.4243$)이 후천적, 원인불명은 평균생활만족도 4.34($p=.5039$)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3. 선행연구의 시사점

지금까지 연구된 장애인 여가활동 특성에 관한 연구는 단편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장애인 여가활동 영역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여가활동 특성의 요인들이 다차원이란 점과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장애인 여가참여자들의 욕구와 동기 그리고 보다 정밀한 차원에서의 기관의 조직과 행정에 대한 요인들이 측정될 수 있는 척도를 연구 개발하여 장애인 여가활동 특성의 다차원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여가활동 종사자의 특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사회

적 변인, 건강 변인, 경제적 변인으로 설정하여 조사·분석하고 장애인 여가활동 참여자의 환경을 개선하여 생활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장애인 여가활동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구를 하고자 한다.



제 3 장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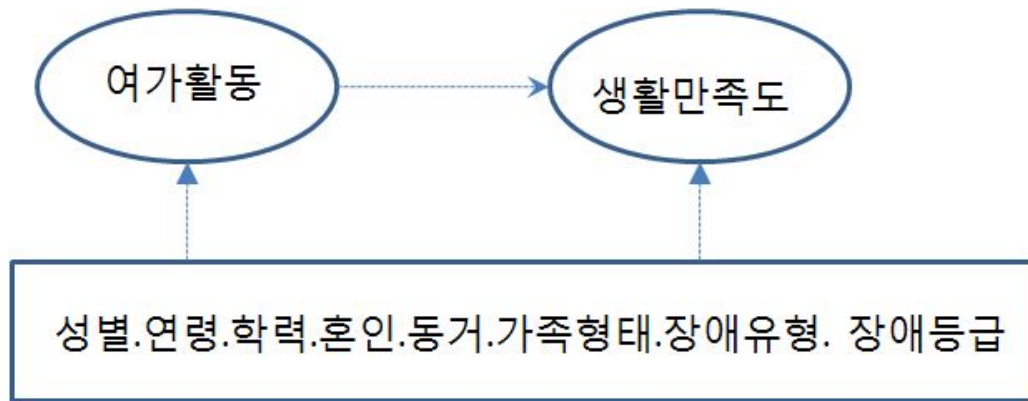
제 1 절 연구 모형 및 연구 가설

1. 연구 모형

위와 같이 여가활동이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를 검토 후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 같은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은 여가활동이 장애인의 생활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따라서 장애인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로서 사회적인요인, 경제적요인, 인구통계학적변인 그리고 여가활동참여로 제한하였다.

사회적 요인은 여가활동에 정(+)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가족관계나 친척관계 그리고 동료들과 관계가 양호할수록 생활의 만족도는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요인과 생활만족도는 장애인의 소득수준이 높고, 주위 환경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덜 받는 장애인이 생활의 만족도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가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는 장애인들의 참여정도가 많을수록, 만족도를 많이 느낄수록, 여가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으로 성, 연령, 학력, 결혼상태, 소득수준, 주거형태, 주거유형 등이 고려되어 질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된 선행연구를 검토 후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여가활동이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목적은 여가활동이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관한 연구이다. 따라서 여가활동이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들로서 다음과 같이 여가활동이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연구 분석틀을 도식화하면 <그림2-3>과 같다.



<그림 2-3> 연구모형

2.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여가 활동이 중 고령자 이상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을 각 요인 별, 여가활동을 통하여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여가활동 중 고령자 이상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 하였다.

첫째,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생활만족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장애인들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장애인들의 여가활동이 생활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여가활동 유무별 생활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넷째, 여가활동이 장애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제시한 연구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생활만족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 1 : 인구통계학적 변인별로 장애인 여가활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가설 2 : 인구통계학적 변인별로 장애인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가설 3 : 여가활동이 장애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정한 가설에 포함된 변수로서 독립변수에는 여가활동,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인 등이며, 종속변수로는 생활만족도 요소이다. 문항 수는 총 27문항으로 독립변수인 여가활동, 사회적요인, 경제적요인, 인구사회학적 변인 등으로 22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변인별 구체적 측정항목은 [표 3-1]과 같다.

[표 3-1] 변수의 구성요소

변 수			문항 수	점수범위
독립변수	여가활동	여가활동	1	1-5
	인구사회학적 변인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동거유형 주거형태, 소득, 장애유형, 장애등급	10	범주화

종속변수	생활만족도	여가만족	1	1-5
		경제만족	1	1-5
		주거만족	1	1-5
		사회적만족	1	1-5
		가족관계만족	1	1-5

제 3 절 분석 방법

분석대상 본 연구에 조사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이 수행한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연구 중 장애노인의 여가와 생활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수집한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장애노인 인식조사는 장애노인 생활만족도에 답변한 사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장애노인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로는 여가활동을 종속변수는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변인으로 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학력, 동거유무 등의 변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는 장애인의 여가활동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한 4개의 연구문제와 각각의 연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설들을 설정 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위해 다양한 분석기법들을 이용하였다 자료의 분석 위한 분석방법은 SPSSWIN 12 program을 이용하고자 한다.

각각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인별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가설들은 인구통계학적 요인별 중 고령자 장애인들의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교차분석 과 카이검증 으로 분석하고자한다. 둘째, 장애인들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가설검증은 다중회귀분석에 의한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고자한

다. 셋째, ‘여가활동 유무에 따라 생활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의 검증은 분산분석(ANOVA)과 t-검증을 실시하고자한다. 넷째, 장애인들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과, 분산분석 그리고 다중회기분석을 실시하고자한다.



제 4 장 연 구 결 과

제 1 절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여가활동이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들이 가지는 통계적인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우선 장애인들의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 따라,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서 설정하고 있는 여가활동과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t-test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중 성별, 연령, 혼인, 학력, 소득, 동거유무, 주거형태, 장애등급, 변수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서 설정한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검증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여가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확인하였으며, 설문문을 통해 확인된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빈도수와 분포율을 정리한 기술적인 통계 현황은 [표4-1]와 같다.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우선 설문문에 응답한 여가에 참여하는 장애인 총 2,971명 중, 남성 장애인의 숫자는 1,803명 60.7%이었으며, 여성 장애인의 숫자가 1,168명 39.3%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다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의 연령대 분포는 60-64세인 장애인이 136명 38.7%로 가장 많았고, 65-69

세 장애인이 87명 24.8%, 70-74세 장애인이 45명 12.8%, 75-79세 장애인이 57명 16.2%, 80세 이상 장애인이 26명 7.4%로 나타났다. 현재 혼인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미혼이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5명 1.4%였으며, 부부가 함께 동거중이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246명 70.1%로 가장 많았고, 사별했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95명 27.1%이었으며, 그 밖에도 이혼 또는 별거중이라고 응답한 장애인도 5명 1.4%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4 -1]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문항	조 사 항 목		빈 도(명)	백 분 율
1	성 별	남 성	1803	60.7%
		여 성	1168	39.3%
2	연 령	60-64세	728	24.5%
		65-69세	828	27.9%
		70-74세	726	24.4%
		75-79세	434	14.4%
		80세이상	255	8.6%
3	혼 인	미 혼	48	1.6%
		부부동거	2002	67.4%
		사 별	780	26.3%
		이혼,별거	141	4.7%
4	학 력	무 학	672	22.6%
		초 등 졸	53	15.1%
		중 졸	55	15.7%
		고 졸	96	27.4%
		대학이상	79	22.5%
5	소 득	중 하 위	212	60.4%
		중 산 층	124	35.3%
		중 상 위	15	4.3%
6	동거유무	배우자함께	236	67.2%
		혼 자	77	21.9%
		결혼한아들부부	14	4.0%
		결혼한 딸부부	12	3.4%
		미혼자녀	12	3.4%
		기 타	0	0.0%
7	주거형태	자 가	231	65.8%
		전 세	47	13.4%
		월 세	67	19.1%
		양 로 원	5	1.4%
		기 타	1	0.3%
8	장애유형	아동·청소년복지	43	12.3%
		장애인복지	88	25.1%
		장애인복지	8	2.3%
		환경정비	25	7.1%
		행정업무지원	10	2.8%
		기 타	177	50.4%

9	장애등급	1년 미만	20	5.7%
		1-3년 미만	33	9.4%
		3-5년 미만	41	11.7%
		5-7년 미만	41	11.7%
		7년 이상	44	12.5%
		없 다	172	49.0%
합계			2971	100.0%

또한 학력에 있어서는 취학하지 않은 무학자라는 응답이 68명 19.4%, 초등학교 졸업자가 53명 15.1%, 중학교졸업자가 55명 15.7%, 고등학교 졸업자가 96명 27.4%,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79명 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중하위층 소득이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212명 60.4%로 가장 많았으며, 중산층이 124명 35.3%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보였고, 중상위 수준이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15명 4.3%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이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나타내는 동거유무를 묻는 항목에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가 236명 67.2%로 가장 많았고, ‘혼자산다’ 77명 21.9%, ‘결혼한 아들부부와 산다’ 14명 4.0%, ‘결혼한 딸부부와 산다’ 12명 3.4%, ‘미혼자녀와 산다’ 12명 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주거형태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주거한다는 응답이 231명 65.8%로 가장 많았고, 전세 47명 13.4%, 월세 67명 19.1%, 양로원 5명 1.4%, 기타 형태가 1명 0.3%로 나타났다. 여가분야에 대해서는 아동 및 청소년복지 분야가 43명 12.3%, 장애인복지가 88명 25.1%, 장애인복지가 8명 2.3%, 환경정비가 25명 7.1%, 행정업무지원이 10명 2.8%, 기타업무 수행이 177명 50.4%로 나타났다. 끝으로 여가기간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20명 5.7%였고, 1-3년 미만이 33명 9.4%, 3-5년 미만이 41명 11.7%, 5-7년 미만이 41명 11.7%, 7년 이상이 44명 12.5%, 아직 여가 활동기간이 없고 준비 중 또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172명 49.0%로 나타났다.

2.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여가활동에 대한 분석결과

조사대상자인 장애인들의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본 연구에서 대

표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10가지 하위변수인 성별, 연령, 혼인, 학력, 소득, 동거유무, 주거형태에 따라서 장애인들의 여가참여 실태, 참여의지, 중요성 등을 나타내는 독립변수인 여가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2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각각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여가활동 간의 t-test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1) 성별

조사 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라서 여가활동이 통계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샘플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2] 성별과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결과

그룹 통계								
구 분	성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여가활동	남성	1803	3.32	1.045	0.25			
	여성	1168	3.43	1.017	0.30			

독립T검정								
구 분		Levene의 등분산 검정		독립 T 검정				
		F값	유의 확률	t값	자유도	유의확 률 (양쪽)	평균 차이	표준오차 차이
여가 활동	등분산이 가정됨	.044	0.049	8.020	2969	0.000	4.40605	0.54941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7.892	2539.615	0.000	4.40605	0.55827

위의 [표4-2]에 따르면, 장애인의 성별과 여가활동 간에는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F값.044, 유의확률 .049로 타당한 검정 모형임을 알 수 있었고, 두 변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분류인 남성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 중 여가활동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남성(평균 18.6767)이었으며, 여성이 남정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평균 14.2706)의 여가활동 지수를 보이고 있었다.

2) 연령

조사 대상자들의 연령에 따라서 여가활동이 통계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3] 연령과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결과

기술통계								
여가활동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선	상한선		
60-64세	728	3.38	1.010	.037	3.31	3.46	1	5
65-69세	828	3.36	1.043	.036	3.28	3.43	1	5
70-74세	726	3.31	1.022	.038	3.23	3.38	1	5
75-79세	434	3.45	1.080	.052	3.35	3.55	1	5
80세이상	255	3.34	1.037	.065	3.21	3.47	1	5
합계	2971	3.36	1.035	.019	3.33	3.40	1	5

분산분석					
여가활동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1,322.632	4	1.498	1.399	0.000
집단내	8,983.111	2966	1.071		
합계	10,305.744	2970			

위 [표4-3]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인 장애인들의 연령과 여가활동 간에는 유의확률 .000, F값 1.39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별로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75-79세 장애인들이 가장 높은 여가활

동 지수(평균 3.45)를 보이고 있었으며, 60-64세(평균 3.38), 70-74세(평균 3.31), 65-69세(평균 3.36), 80세 이상(평균 3.34)의 순으로 여가활동 지수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대 75-79세 장애인이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참여의지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혼인

조사 대상자들의 혼인상태에 따라서 여가활동이 통계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4] 혼인과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결과

기술통계

여가활동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선	상한선		
미혼	48	3.06	1.210	.175	2.71	3.41	1	5
유배우	2002	3.67	1.030	.023	3.31	3.40	1	5
사별	780	3.36	1.031	.037	3.29	3.43	1	5
이혼.별거	141	3.35	.985	.093	3.48	3.85	2	5
합계	2971	3.36	1.035	.019	3.33	3.40	1	5

분산분석

여가활동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1,515.206	4	4.136	3.874	0.000
집단내	8,790.537	2966	1.068		
합계	10,305.744	2970			

위 [표4-4]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현재 혼인상태와 여가활동의 관계에 대한 분산분석결과 유의확률 .000, F값 3.874로 두 변수 간에 비교적 높은 수준의 통계적인 관련성이 검증되고 있다. 분석결과 현재 부부가 함께 동

거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지수(평균 3.67)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별한 상태인 장애인(평균 3.36), 이혼 및 별거 중인 장애인들(평균 3.35), 미혼인 장애인들(평균 3.06)의 순서로 여가활동 지수가 나타났다. 즉, 이러한 장애인들의 여가활동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나 활동은 부부 동거 장애인들보다도 상대적으로 사별 또는 이혼 및 별거, 미혼 상태인 장애인들을 중점적으로 케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학력

조사 대상자들의 학력에 따라서 여가활동이 통계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5] 학력과 여가활동만족도 에 관한 연구결과

기술통계								
여가활동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선	상한선		
무학	672	3.45	.978	.038	3.38	3.52	1	5
초등졸	1157	3.40	.998	.029	3.35	3.46	1	5
중졸	473	3.27	1.061	.049	3.17	3.37	1	5
고졸	448	3.34	1.108	.052	3.24	3.44	1	5
대학이상	221	9.66	1.252	.229	3.07	4.00	1	5
합계	2971	3.36	1.035	.019	3.33	3.40	1	5

분산분석

여가활동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 확률
집단간	2,517.377	6	4.689	4.405	0.000
집단내	7,788.366	2964	1.064		
합계	10,305.744	2970			

위 [표4-5]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학력에 따른 여가활동은 유의확률 .000, F값 4.405로 매우 높은 수준의 통계적인 관련성이 나타나고 있다. 분석결과 여가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대학이상 졸업자의 학력을 가진 장애인이었으며(평균 9.66), 고등학교 졸업(평균 3.34), 중학교 졸업(3.27), 초등학교 졸업(평균 3.40), 미취학 무학자(평균 3.45)의 순으로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점수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장애인요인에 대한 연구와 같은 결과로써 장애인들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여가활동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의 참여의지, 중요성 인식, 참석율 등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5) 소득

조사 대상자들의 소득에 따라서 여가활동이 통계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6] 소득과 장애인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결과

기술통계

여가활동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선	상한선		
중하위	1530	10.33	.028	.038	3.43	3.58	1	5
중산층	1362	9.47	1.096	.057	2.93	3.15	1	5
중상위	79	7.17	1.195	.423	2.00	4.00	1	5
합계	2971	3.36	1.035	.019	3.33	3.40	1	5

분산분석

여가활동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1,174.424	8	9.274	8.836	0.000
집단내	9,131.319	2962	1.050		
합계	10,305.744	2970			

위 [표4-6]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소득수준과 여가활동 간에는 유의확률 .000, F값 8.836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 장애인의 여가활동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소득수준은 중하위 소득계층 장애인들(평균10.33)이었으며, 중산층 장애인들(평균 9.47), 중상위층 장애인들(평균 7.17)의 순으로 여가활동 점수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7) 장애인 유형

조사 대상자들의 봉사분야에 따라서 여가활동이 통계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7] 장애유형과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결과

기술통계								
여가활동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선	상한선		
지체장애	407	3.39	1.013	.050	3.29	3.48	1	5
뇌병변장애	440	3.53	1.047	.050	3.44	3.63	1	5
시각장애	456	3.38	1.000	.047	3.29	3.47	1	5
청각장애	442	3.15	1.021	.078	3.19	3.50	1	5
언어장애	278	3.35	1.021	.078	3.19	3.50	1	5
지적장애	948	3.44	.922	.217	2.99	3.90	1	5
합계	2971	3.36	1.035	.019	3.33	3.40	1	5

분산분석

여가활동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4,480.369	13	5.457	5.185	0.000
집단내	5,825.375	2957	1.052		
합계	10,305.744	2970			

위 [표4-7]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장애유형이 여가활동 간의 관계는 분산분석결과 유의확률 .000, F값 5.185로 매우 높은 수준의 통계적인 관련성이 검증되었다. 각 분야별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높은 여가활동 점수를 나타낸 것은 장애유형이 여가활동을 하는 뇌병변 장애인들(평균 3.53)이었으며, 청각지적장애가 두 번째로 높은 점수(평균 3.44)를 보였고, 지체 장애가(평균 3.39), 시각장애인(평균 3.38), 언어장애(평균 3.35), 청각장애 (평균 3.15)의 순으로 여가활동 점수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여가활동 점수가 낮게 측정되는 지적장애나 언어장애인들이 여가의 중요성과 참여의지 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0) 장애등급

조사 대상자들의 장애등급에 따라서 여가활동이 통계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8] 장애등급과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결과

기술통계

여가활동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선	상한선		
1급	325	3.77	1.036	.057	3.66	3.88	1	5
2급	587	3.53	1.040	.043	3.45	3.62	1	5
3급	828	3.33	1.012	.035	3.27	3.40	1	5
4급	493	3.21	1.010	.045	3.12	3.30	1	5
5급	464	3.19	1.009	.047	3.10	3.28	1	5
6급	274	3.17	1.002	.061	3.05	3.29	1	5
합계	2971	3.36	1.035	.019	3.33	3.40	1	5

분산분석

여가활동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5,019.440	5	21.485	20.712	0.000
집단내	5,286.304	2965	1.037		
합계	10,305.744	2970			

위 [표 4-8]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장애등급과 여가활동 간에는 유의확률 .000 F값 20.712로 매우 높은 수준의 통계적인 관련성이 나타나고 있다. 분석결과 가장 높은 여가활동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 1등급(평균 3.77)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2등급(평균 3.53), 3등급(평균 3.33), 4등급경우(평균 3.21), 5등급(평균 3.19), 마음은 있으나 참여의사만을 가진 경우 6등급(평균 3.17)의 순으로 여가활동 점수가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는 대체로 등급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여가활동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여가활동을 참여할수록 여가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나, 참여의지, 활동 자체에 대한 인식 등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11) 분석 결과의 요약

조사대상자인 장애인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여가활동이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의 다음과 같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중 여가활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난 변인은 성별($p=.000$, $t=8.020$), 연령($p=.000$, $F=1.399$), 혼인($p=.000$, $F=3.874$), 학력($p=.000$, $F=4.405$), 소득($p=.000$, $F=8.836$), 동거유무($p=.000$, $F=3.874$), 장애유형($p=.000$, $F=5.185$), 장애등급($p=.000$, $F=20.712$)의 8개의 모든 변인에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장애인 생활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

조사대상자인 장애인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하위변수로서 설정한 연령, 혼인, 학력, 소득, 장애유형, 장애등급에 따라서 장애인들의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3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각각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생활만족도 간의 t-test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1) 연령

조사 대상자들의 연령에 따라서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9] 연령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결과

기술통계								
생활만족도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선	상한선		
60-64세	728	3.15	.918	.034	3.09	3.22	1	5
65-69세	828	3.16	.922	.032	3.10	3.22	1	5
70-74세	726	3.17	.900	.033	3.11	3.24	1	5
75-79세	434	3.25	.895	.043	3.16	3.33	1	5
80세 이상	255	3.17	.919	.058	3.06	3.29	1	5
Total	2971	3.18	.911	.017	3.14	3.21	1	5

분산분석					
생활만족도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 확률
집단간	2,398.369	4	.685	.825	0.000
집단내	6,489.790	2966	.830		
합계	8,888.160	2970			

위 [표4-9]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인 장애인들의 연령대와 생활만족도 간의 분산분석 결과 유의확률 .000 F값 .825로 두 변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장애인들의 각각의 연령대별 분류 중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연령대는 60-64세 (평균 3.1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만족도가 높은 순서대로 65-69세(평균 3.16), 70-74(평균 3.17), 80세 이상(평균 3.17), 75-79세 이상(평균 3.25)의 순으로 생활만족도가 나타났다. 대체로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60-65 연령대가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60-65 연령대의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2) 혼인

조사 대상자들의 혼인상태에 따라서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10] 혼인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결과

기술통계

생활만족도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선	상한선		
미혼	48	3.19	1.065	.154	2.88	3.50	1	5
부부동거	2002	3.08	.900	.020	3.04	3.12	1	5
사별	780	3.32	.877	.031	3.26	3.38	1	5
이혼, 별거	111	3.63	.894	.085	3.46	3.80	1	5
합계	2971	3.18	.911	.017	3.14	3.21	1	5

분산분석

생활만족도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3,343.992	4	20.136	25.041	0.000
집단내	5,544.168	2966	804		
합계	8,888.160	2970			

위 [표4-10]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현재 혼인상태를 나타내는 혼인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유의확률 .000, F값 25.041로 통계적인 관련성이 검증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혼인 상태는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평균 3.08)로 나타났으며, 미혼자의 경우(평균 3.19), 사별한 경우(평균 3.3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혼 및 별거 상태인 경우가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은(평균 3.63)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혼 및 별거 상태인 장애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장애인은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력

조사 대상자들의 학력에 따라서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11] 학력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결과

기술통계

생활만족도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선	상한선		
무학(만7이상)	672	3.27	.871	.034	3.21	3.34	1	5
초등학교	1157	3.20	.885	.026	3.15	3.25	1	5
중학교	473	3.18	.948	.044	3.09	3.26	1	5
고등학교	448	3.10	.932	.044	3.01	3.19	1	5
대학이상	30	3.47	1.074	.196	3.07	3.87	2	5
합계	2971	17.1396	5.03932	0.26898	16.6106	17.6686	5.00	25.00

분산분석

생활만족도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4,001.122	6	6.677	8.159	0.000
집단내	4,887.037	2964	.818		
합계	8,888.160	2970			

장애인의 학력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분산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있는 [표-]에 따르면, 학력과 생활만족도는 유의확률 .000, F값 8.159로 매우 높은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음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의 생활만족도(평균 3.10)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학력을 가진 장애인(평균 3.10), 초등학교 졸업(평균 3.20), 무학(만7세이상 (평균 3.27), 대학이상 경우(평균 3.47)의 순으로 생활만족도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체로 고등학교 학력이 상대적으로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학이상의 학력에 대한 생활만족도 개선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4) 소득

조사 대상자들의 소득에 따라서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12] 소득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결과

기술통계

생활만족도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선	상한선		
중하위	1530	14.8679	4.59770	0.31577	14.2455	15.4904	5.00	24.00
중산층	977	20.4839	3.36767	0.30243	19.8852	21.0825	14.00	25.00
중상위	446	21.6000	4.25609	1.09892	19.2431	23.9569	15.00	25.00
합계	2971	17.1396	5.03932	0.26898	16.6106	17.6686	5.00	25.00

분산분석

생활만족도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2,779,290	8	25.917	33.993	0.000
집단내	6,108,870	2962	.762		
합계	8,888,160	2970			

위 [표4-12]에 따르면, 장애인의 소득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분산분석결과 유의확률 .000, F값 33.993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통계적 관련성이 검증되었으며, 각각의 소득별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가장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소득계층은 중상위 소득계층(평균 21.6000)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중산층 소득의 장애인(평균 20.4839)이 중간 정도로 나타났으며, 중하위 소득의 장애인(평균 14.8679)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도 비교적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장애유형

조사 대상자들의 봉사분야에 따라서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13] 장애유형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결과

기술통계

생활만족도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선	상한선		
지체장애	407	3.16	.825	.041	3.08	3.24	1	5
뇌병변장애	440	3.31	.927	.044	3.22	3.39	1	5
시각장애	456	3.12	.883	.041	3.04	3.20	1	5
청각장애	442	3.03	.867	.041	2.95	3.11	1	5
언어장애	173	3.24	.964	.073	3.10	3.39	1	5
지적장애	18	3.22	.808	.191	2.82	3.62	1	5
Total	2971	3.18	.911	.017	3.14	3.21	1	5

분산분석

생활만족도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2,183.373	13	2.975	3.975	0.000
집단내	6,704.786	2957	.0821		
합계	8,888.160	2970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결과 유의확률 .000, F값3.975로 두 변수 간의 통계적인 관련성이 검증되었으며, 각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장애유형은 청각각장애(평균 3.03)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시각장애(평균 3.12), 지체장애(평균 3.16), 지적 장애 (평균3.22), 언어장애(평균3.24), 뇌병변장애 (평균 3.31)의 순으로 생활만족도

가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뇌병변장애에서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어려움이나 불만사항을 파악하는 등의 생활만족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6) 장애등급

조사 대상자들의 봉사기간에 따라서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14] 장애등급과 장애인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결과

기술통계

생활만족도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선	상한선		
1급	325	3.54	.967	.054	3.44	3.65	1	5
2급	587	3.30	.917	.038	3.23	3.38	1	5
3급	828	3.19	.898	.031	3.13	3.25	1	5
4급	493	3.04	.887	.040	2.97	3.12	1	5
5급	464	3.02	.872	.040	2.94	3.10	1	5
6급	274	2.92	.797	.048	2.83	3.02	1	5
Total	2971	3.18	.911	.017	3.14	3.21	1	5

분산분석

생활만족도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2,680.789	5	18.206	22.733	0.000
집단내	6,207.370	2965	.801		
합계	8,888.160	2970			

위 [표 4-14]에 따르면, 장애인의 장애등급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유의확률 .000, F값 22.73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검증되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생활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장애6등급(평균2.92)이고장애5등급이(평균3.02), 다음으로는 장애4등급으로(평균 3.04),이고장애3등급(평균 3.19), 장애2등급(평균 17.7805),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1등급 (평균 3.54)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같은 결과는 여가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의사가 있는 장애인들의 여가와 관련된 다양한 제반사항들을 개발하고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7) 분석 결과의 요약

조사대상자인 장애인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중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서 설정하고 있는 생활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난 변인은 연령($p=.000$, $F=.825$), 혼인($p=.000$, $F=25.041$), 학력($p=.000$, $F=8.159$), 소득($p=.000$, $F=33.993$), 동거유무($p=.000$, $F=25.041$), 장애유형($p=.000$, $F=3.975$),장애등급, ($p=.000$, $F=22.733$)의 8개 변인에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장애인의 성별 에 있어서 는 생활만족도와 통계적인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다.

제 2 절 장애인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인 장애인들의 여가와 관련된 환경적인 특성, 지지, 가능성, 참여용이성 등을 대표하는 독립변수로써 설정한 장애인 요인과 장애인들의 여가 활동 자체에 관련된 중요성 인식, 참여의지, 활동 자체의 적극성 등을 대표하는 또 다른 독립변수 여가활동이 각각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장애인요인과 여가활동과의 관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 2를 설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장애인요인과 여가활동이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독립변수인 장애인요인과 여가활동,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 간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장애인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여기서는 본 연구가 가장 관심 있게 확인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장애인 요인과 여가활동이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장애 요인과 여가활동이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앞서 설정한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15]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 간의 회귀분석 결과

모델 요약^a

R	R 제곱	조정된 R 제곱
.457(a)	.209	.811

a. 독립변수: (상수), 장애인요인, 여가활동

분산분석^{ab}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값	514.540	4	514.540	782.980	.000(a)
잔차	1951.096	2964	.657		
총합	2465.636	2970			

a. 독립변수: (상수), 장애인요인, 여가활동

b. 종속변수: 생활만족도

계 수^a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Beta		
(Constant)	1.823	0.871		36.060	.000
여가활동	.402	0.040	.457	27.982	.000

a. 종속변수: 생활만족도

위의 [표4-15]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독립변수인 장애인의 장애인 요인과 여가활동은 종속변수인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와 유의확률 .000, 모형의 적합도 F=782.980로 매우 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변수에 관해서도 장애인요인과 생활만족도가 유의확률 .000, t=36.060으로 높은 관련성을 보였으며,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에 있어서도 유의확률 .000, t=27.982 로 통계적 관련성이 검증되고 있다. 분석결과 독립변수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요인은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에 베타값(회귀계수) .402으로 40.2% 만큼의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베타값의 방향이 양수로 장애인요인의 값이 증가할수록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역시 증가하는 정적(+)인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활동에 있어서도 베타값이 0.250으로 25.0% 만큼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여

가활동의 지수가 높아질수록 장애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정적(+)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모형의 설명력 조정된 R 제곱의 값이 0.546으로 54.6% 만큼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유의미성을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장애인들의 장애인요인과 여가활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활동이나 정책의 수립이 결국 장애인들의 생활만족도를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가를 지원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활동을 함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정책적 제언

향후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여가에 대한 사회인식의 전환, 장애인 층의 인식전환, 참여기회 확대가 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인식 전환이 되어야한다. 최근 60대 장애인이나 70대 초반의 장애인 중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장애인들이 많고 이들 가운데는 고학력과 경제적 여유를 가진 ‘초기 장애인층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육체적, 정신적 쇠퇴로 인하여 의존적이며 비활동적인 존재라는 기존의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들도 발달과정 속의 존재로 파악한 발달이론에 의하면, 여가활동은 장애인의 발달과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발달이론과 관련하여 사회적 인식 측면을 강조하는 이성록의 완성 이론에 의하면, 성인기를 중심으로 이전의 단계를 미숙의 단계로, 이후의 단계를 쇠퇴의 단계로 보는 지배모델은 수정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모든 인간은 모든 발달 단계에서 자기완성의 과업을 갖는다는 정상모델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장애인 층의 인식전환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즉 이것은 장애인들에게 여가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가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어도 경로를 알지 못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여가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여가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참여기회 확대가 되어야 한다. 여가활동은 그자체가 민주시민을

양육하는 교육훈련의 과정이며 동시에 복지사회의 주체로서 역량을 축적하는 국민교육의 최선의 기회이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여가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지하여 21세기 복지사회를 향한 기초를 다지고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교육의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생애체제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편 은퇴 시민들의 사회참여의 기회로 여가활동이 부각되고 있다. 은퇴 시민들의 퇴직 후 생애과정의 일환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참여할 수 있다면 건강생활 등 노년기의 삶의 질은 물론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은퇴시민들은 젊은 학생들과 같이 여가활동을 하는 과정을 통해 전통문화의 전승자가 될 수 있고, 후손에게 모범이 됨으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로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쁨과 보람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루한 노년기가 아니라 활기찬 살맛나는 노년기로 변화될 것으로 확신한다.

넷째, 안전보호. 인정보상제도의 도입이 되어야한다. 사기진작은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촉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면 회식 및 친목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 소그룹과정을 통한 자기성찰 및 여가활동의 본질적의미를 터득할 수 있는 기회와 기쁨과 보람의 생성, 교육훈련의 기회제공, 회보, 소식지발송, 전화 및 감사편지 보내기, 친절한 응대, 개별상담과 격려, 칭찬, 여가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하여 참여 효과를 느끼게 하고 신바람을 생성케 하여 중단 없이 활동을 계속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장애인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함께 여가 활동에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동기화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들이 지닌 자원들을 가지고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사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도움 자체 외에 그 이상의 상호 작용적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여가활동은 긍정적. 규칙적인 생활태도로 건강을 유지 할 수 있게 하고 노후 생활을 만족 할 수 있게 하며, 장애인으로 하여금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장애인문제를 해결 할 있도록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것은 잠재능력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장애인이 자기성장을 도모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발전에 기여 할 수 있게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사회를 변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가치이자 행동규범이다. 지역사회와 세계와의 연계 속에서 공동체의 실현 및 인류애를 실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여가, 그것이 무엇인가” 에 관한 것만 아니라 “여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으로 하여금 건강하고 만족스런 노후생활을 영위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가활동의 구성체계가 각 각의 차원에서 원활하게 작용하는 한편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질 때 여가활동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여가활동은 각 구성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정책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미경(2009),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 _____(2010),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한국가족복지학회.
- 김광득(1990), 「현대여가론 : 이론과 실제」, 백산출판사
- 김도연(2004),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 실태와 여가태도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동선(2003), “사회적 지지가 지체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민녀·채규만(2006),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기혼자의 결혼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건강」, 한국심리학회 11(4), pp.655-671.
- 김성순(1999), 「고령화 사회와 복지행정」, 서울: 홍익재, pp.405-409
- 김성진(2009),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에 따른 자신감과 생활만족도”, 「재활복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3(3).
- 김희경(2008),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남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백은령, 노승현(2010), “노령 지체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한국장애인복지학회, 10(13).
- 양옥경(1994), “삶의 만족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회, 24, pp.157-198.
- 유영무(2006), “장애인의 재활운동 참여형태가 생활만족도 및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익섭, 신은경, 이민규, 이범석,(2007), “척수 손상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장애와 고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17(2) pp.31-53

이정숙.(2010).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2

이중섭(2009), “빈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 16(1).

_____(2010), “장애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등록장애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47(10), pp.187-212.

정복자(2005),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이 생활만족도와 비만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한국여성체육학회, 19(5).

2. 국외문헌

Atchely, R.C.(1975). "Adjustment to loss of job at retir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Human Development*, 6(1). pp.17-27.

Beatty, P. T. & Burroughs, L(1995). "Preparing for an Aging Workforce : The role of Higher Education", *Educational Gerontology*, 25(6), pp.595-611.

Berodo, F. M.(1980). *Decade Review : Family research*. NCFR. Nov.

Cambell, A.(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2.

Caro, F. G., & Bass, S. A. (1995). *Increasing Voluntary among Older People*. In SA. Bass(ed.) *Older & Active; How Americans over 55 are Contributing to Society*. New Haven, C T; Yale University Press.

Chdi, C.(2001), "Aging and Life Satisfac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54(1), pp.57-82.

- Cumming, E & Henry, W.E. (1961), *Growing old ;The process of disengagement*, New York : Basic Books.
- Darvill, G., & Munday, B. (1984). *Volunteer in the personal social service*, Tavistock Publications & NY.
-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pp.542-575.
- _____.(1994), "Asse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 research*, 31.
- George, L, K,Bearon L. B.(1980), *Quality of life in Older persons*. New York. Human Sciences Press, pp.102-105.
- Havighurst, R. J; Neugarten, B. L. & Tobin, S.S.(1963) *Disengagement Pattern of Aging*. In B.L. Neugartten(Ed), *Middle age-Aging*, pp 160-175,
- Ilsley, P. J,(1990), *Enhancing the Volunteer Experience*, San Francisco : Jossey-Bass Publishers, pp.7-12.
- Hawkins, J. L.(1968). "Associations between Companionship, Host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4). p.85.
- Lehmen., A. F. (1998), "A Quality of life interview for the Chronicaly Mentaly ill", *Valuation program Planning* 11, pp.51-62.
- Moen, P., Dampster-Mclain, D., & Willain- Mciane, D., & Williams, R. (1992). "Successful aging: A life-course perspective on women's multiple roles and healt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of Sociology*, 97(6), pp.1612-1638.
- NASW(1997). *Encyclopedia of social work*. 2nd, eds, p.1582.
- Neugarten, B. L & Havighurst, R, J & Tobin, S, S. (1979),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2).
- _____ & S. S. Tobin(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Palmore, E, & Kivett, V.(1977), "Change in Life Satisfaction; A
Long-itudinal study of Persons Aged 46-70", *Journal of
Gerontology*, p.32..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Leisure Activity of Eldery Disabled on Life Satisfaction

Pyun, Min Sook

Major in Welfare for the Aged

Dep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e intention of this research is mainly about investigating causes and effects of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handicapped, who participates in leisure activities by joining related agencies and those who aren't, to give guidance to all the elderly handicapped. Additionally, it is to make their lives abundant to increase their satisfaction in life by giving them their social status and role that was lost through increase in elderly handicapped and retirement. Politically, bringing beneficial factors to the nations finance as its purposes.

The following analysis is the virtue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of the elderly handicapped and their level of living satisfaction.

The various methods that were used to carry out the research were the following; frequency, intersection and distribution analysis as well

a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requency analysis was used to find out the distinction of the sample. Intersection analysis of the population statistical various causes of the level of living satisfaction was used to discover the reality of living satisfaction that handicapped experience. T-and distribution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the level of living satisfaction of the handicapped with the presence of leisure activities. Lastly,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compare the effects of the participation in leisure on the level of living satisfaction of the elderly handicapped who are over 60 years old.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shows; substituting leisure activities of the handicapp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level of living satisfaction as the dependent variable, it gives the significance probability as $p < .000$ and the model suitability as $F = 782.980$. As a result, these two variables show a very high statistical significance. Causes of the handicapped and the level of living satisfaction's significance probability gave $p < .000$ and $t = 36.060$, each of the variables independently show a high relation. Leisure activities and the level of living satisfaction gave significance probability as $p < .000$ and $t = 27.982$, so these results verifies the statistical relation. Looking at the independent variable of the analyzed result, the causes of the handicapped is beta value (regression coefficient) of the level of living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It gives .402, which is 40.2%; a high influence. As the beta value is positive, the increase in value of the leisure activities results in the increase in the level of living satisfaction, which shows a positive(+) relation. Moreover, leisure activities has .250, 25% of influence, the increase in the value of leisure activities with the level of living satisfaction also shows a positive relation. These results set

up by explanation of the model, its R power of two(R-square) gives 0.546, which is 56% of explanation and can be analyzed to have a very high statistical significance. Overall, the results suggests that an affirmative approach on establishing or improving the leisure activities of the elderly handicapped would have a positive influence in the level of living satisfaction of the elderly handicapped. As a result, supporting the leisure activities and creating new programs etc, are very meaningful results as a political activity so a political achievable plan is needed.

[Keyword] : elderly handicapped, lives of the elderly,
living satisfaction, leisure activities

